



박용성 회장 권유...정부 설득...전방위 스포츠 외교로 '일사천리'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 일지



'수영불모지' 광주 유치 기획부터 확정까지

U대회 이후 조직운영 고민에서 출발 중국·일본 등 경쟁자들 설득 포기시작

광주시가 '메가스포츠 이벤트'인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유치 기획부터 단독후보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영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에서 정부의 지원도 없이 세계적인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과정을 되짚어 봤다.

▷U대회 이후 조직운영 고민 = 2010년 7월 민선 5기 광주시장으로 입성한 강운태 시장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조직운영을 고민하게 됐다. 내무부 장관을 지내는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강 시장은 U대회가 끝나면 시청에서 파견된 130명에 이르는 조직이 갈 곳을 잃으면서 인사 등 조직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 초기인데다 수많은 시장 현안이 겹겹으로 쌓여있던 터라 일단 미뤄두기로 했다.

고민을 풀 수 있는 기회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찾아왔다. 강 시장은 2011년 3월 2015년 U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박용성 전 대한체육회장을 만났고, 박 회장은 "세계 3대 단일종목인 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유치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부산이 나서면 좋은 텐데 머뭇거리고 있다"는 말을 털어놨다.

이 말을 들은 강 시장은 '철호의 기회'라는 판단을 내리고, 특유의 독심으로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전에 돌입한다. U대회 조직 재운영은 물론 광

주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곧바로 이기훈 대한수영연맹회장을 광주로 초청해 유치를 위한 사를 전달하는 한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011년 10월 국제수영연맹 홀리오 회장과의 사를 접하고, 박용성 전 회장과 함께 이들을 만나 유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같은 광주시의 열정을 높게 평가한 대한수영연맹과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대회 개최 승인을 해줬고, 문체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부산시의 반발 등으로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으나, 이미 광주가 수영연맹 등에 승인받은 점이 최종 인정됐다.

▷국제수영연맹과 인연 쌓기 돌입 = 강 시장은 2012년 7월 런던올림픽을 시작으로 각종 국제대회에 다니며 FINA 회장 및 집행위원들과의 인맥 쌓기에 들어가는 등 스포츠 외교력을 발휘했다. 사실 수영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는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중국 심천이나 일본 도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국제도시와의 싸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집행위원 개별 접촉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광주는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고립이 더욱 심화됐다. 이를 극복하고자 강 시장은 또 한번 특유의 독심을 발휘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조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다녔다. 이러한 광주 2년에 걸친 유치 노력에 국제수영연맹도 감동했다.

지난해 12월 터키 이스탄불 FINA 챔피언십 만찬장에서 홀리오 국제수영연맹 회장은 "광주가 보여주고 있는 정성과 세계수영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억하자"는 발언으로 광주 유치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는 당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중국 심천과 일본 도쿄가 유치 포기를 고민하

역대 개최도시 및 예정지역

회수	년도	개최국	도시명
1	1973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2	1975	콜롬비아	칼리
3	1978	서독	베를린
4	1982	에콰도르	과야킬
5	1986	스페인	마드리드
6	1991	호주	퍼스
7	1994	이탈리아	로마
8	1998	호주	퍼스
9	2001	일본	후쿠오카
10	2003	스페인	바르셀로나
11	2005	캐나다	몬트리올
12	2007	호주	멜버른
13	2009	이탈리아	로마
14	2011	중국	상하이
15	2013	스페인	바르셀로나
16	2015 (예정)	러시아	카잔
17	2017 (예정)	멕시코	과달라하라

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강 시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극비리에 중국과 일본을 남나며 광주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설득 작업을 벌였다. 아시아권 도시간 싸움은 서로에게 피해만 준다는 논리도 펼쳤다. 먼저, 일본이 포기의사를 자국 스포츠 신문을 통해 밝혔다. 이후 중국도 대회 참여를 포기했다.

▷세계의 벽 실력으로 정면승부 = 중국과 일본이 포기했다는 소식은 광주에 호재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악재를 불러오기도 했다. 거대 두 도시가 포기했다는 소식에 이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홍콩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직·간접적으로 유치를 사를 밝힌 것이다.

광주는 당시 4월 국제수영연맹의 현지 실사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기존 국제대회 프레젠테이션보다 한 차원 높은 준비로 실시위원들로부터 '엑설런트!'라는 극찬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소식은 언론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전달됐고, 마지막까지 유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북극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까지 최종 투표장소(프레젠테이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계의 벽 실력으로 정면승부 =

중국과 일본이 포기했다는 소식은 광주에 호재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악재를 불러오기도 했다. 거대 두 도시가 포기했다는 소식에 이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홍콩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직·간접적으로 유치를 사를 밝힌 것이다.

광주는 당시 4월 국제수영연맹의 현지 실사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기존 국제대회 프레젠테이션보다 한 차원 높은 준비로 실시위원들로부터 '엑설런트!'라는 극찬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소식은 언론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전달됐고, 마지막까지 유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북극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까지 최종 투표장소(프레젠테이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계의 벽 실력으로 정면승부 =



"잘 해봅시다" 지난 19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수영대회 개막식 경기장인 쿠퍼 런스룸에서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광주가 확정된 뒤 마그넬리는 홀리오 세계수영연맹(FINA) 회장과 강운태 광주시장이 포옹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공동취재단>

광주 경제효과 2조5000억 예상 1만80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듯

광주유치 파급효과는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는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매끄러운 경기운영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개최도시로 이름을 알린데 이어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그리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까지 성공하면서 명실공히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또 대구와 공동으로 2017년 제4회 월드컵에이티브블록식(WBC)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버금가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하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국제수영연맹(FINA)이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 수영대회로 총 202개국에서

2만여명의 선수와 임원, 기자 등이 참가하며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은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다. 실제 전 세계 10여명이 실시간 TV시청을 하고, 45여명이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회 소식을 접하게 된다.

또 스타 선수의 출전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기업 브랜드 노출도 광고 효과도 커진다. 실제 2009년 로마대회의 방송 가치는 14조 원, 2011년 상하이 대회의 방송가치는 18조원에 이른다. 대회기간도 한 달여로 다른 대회보다 두 배 이상 길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장기 체류에 따른 국가 이미지 향상이 관광 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 광주대회에서는 일반인 1만 3000여명이 참여하는 마스터스 대회도 열리는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에 안겨줄 유행형적 가치는 엄청나다. 광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수영선수권대회 유치가 따라 전국적으로 2조4000억원, 광주만으로는 1조

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 또, 전국적으로 1조원, 광주에서만 65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각각 발생하게 된다. 고용도 전국적으로 2만4000명, 광주에서만 1만 8000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만 한정한다면 2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80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 브랜드가 높아지면 광주시의 주력산업인 첨단 산업과 자동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가치 상승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광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수영 선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수영을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킬 경우 광주의 미래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사천리 - 김중두

아무래도 올핸伏이 하나 다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삼주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병원) 061)287-41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세요!

편안한 무안출발 전세기 상품

마카오저항 오감만족, 마카오 & 홍콩 7월27일,30일,8월 2일, 5일 2박 4일(총4회)

세부지향 천천히 휴양지 필리핀 세부 8월7일~8월17일(총4회)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광주/전남 기획상품

에어텔 [APAF01-22] *웨스트 호텔* 세부 4일 / 5일 에어텔 하나 free* 699,000원~

미동부 캐나다 8박 10일 출발일 9월 13일(금) 3,990,000원~

진중모객 [JKP744-CRD] 아나기와 뱃놀이 카멜리아 3박4일 출발일 8월 18~21일 1,368,10,22,24일 349,000원~

골프 챌린지 투어(국내) [AKGV48] 0184 강원도골프 1일 출발일 9월 6일(금) 145,000원~

[AKGV48] 0314 강원도골프 2일 출발일 9월 6일(금) 369,000원~

[CHPF05-NXT] 홍콩/마카오 4일 출발일: 7월 30일 599,000원~

[CHPF07-NXT] 마카오/홍콩/심천 4일 출발일: 7월 27일, 30일 799,000원~

[CHPF05-NXA] 마카오/홍콩 4일 출발일: 8월 11일(일) 1,099,000원~

[CHPF05-NXC] 마카오/홍콩 4일 출발일: 8월 11일(일) 1,099,000원~

[APPF01-22] 세부 4일/5일 899,000원~

[APPF01-22] 세부 4일/5일 1,099,000원~

[APPF02-22] 세부 4일 749,000원~

[APPF02-22] 세부 4일/5일 1,199,000원~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임금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의 받습니다. 선택권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권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 ■관광관련신고 Tel 1577-1233 ■22일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통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